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April 2, 2015 Vol. 477



워터 투게더 콘서트에서 강찬 전도사가 찬양하고 있다.



나성순복음교회에서 25일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가 개최됐다. 이 행사는 수요일 저녁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약 850여 명의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이어졌다.

한 모금의 깨끗한 물로 사랑을

“한 모금의 깨끗한 물로 사랑을 전하세요.”

남미 파라과이의 인디언 마을에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 위한 콘서트 ‘워터 투게더 2015’가 기독문화 사역단체 원하트미니스트리 주최로 열렸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의 수익금으로 35달러 짜리 소형 정수기를 구매, 오픈핸즈를 통해 전달한다.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매달 20달러 후원을 받아 현지의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 주는 일도 계획 중이다.

오픈핸즈가 보급하는 이 정수기는 항균 필터를 포함해 4종 필터가 설치된 물 주머니로 크기가 성인 손바닥 4개 정도를 합친 정도에 지나지 않아 간편하다. 그러나 99.99%의 정수기능을 갖고 있어 빗물을 걸러 시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공동묘지 옆 마을은 이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 마을은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심지어 부패한 시신을 지나간 물까지 인근 식수원으로 흘러 들곤 했지만 이 정수기 덕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CCM 가수 강찬 전도사와 한인 2세로 구성된 힙합 찬양팀 AMP 무브먼트 등이 공연했고 존 죄 목사(달라스 글로벌하베스트교회 담임, JAMA 음악디렉터)가 설교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원하트미니스트리는 기독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문화선교 단체로 신인 CCM 사역자 발굴, 공연 기획, 미디어 및 문서 사역 등을 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말씀 붙들고 성령 받아 복음 전하라”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 열려

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고 권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외에 것은 믿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말라”고 잘라 말한 후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설교에서 계속 성령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성령 체험을 한 경

교단의 임원, 실행위원들이 LA를 방문했으며 한국에서도 이태근 목사, 최성규 목사, 이상준 목사, 이영훈 목사

순복음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히 순복음세계선교회 선교사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찬양으로 은혜를 더했다. 한편, 행사 장소를 제공한 나성순복음교회는 이번 집회를 위해 21일간 다니엘 작정 기도를 드리는 등 영적인 준비에도 힘썼다.

이영훈 목사는 LA 방문에 앞서 23일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뉴욕목회자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말씀을 전했으며 뉴욕교협 회관을 방문해 함께 기도했다. 김준형 기자

美 흑인교회, PCUSA와 교류 단절

미국 15개 교단에 속한 3만4천여 흑인교회들이 미국장로교(PCUSA)의 동성결혼 허용을 비판하며 교류 단절을 선언했다. 이 교회들이 속한 전미흑인교회협의회(National Black Church Initiative)는 성명을 내고 PCUSA에 회개를 촉구했으며,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결정을 번복하기 전까지 PCUSA와의 모든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NBCI 회장인 앤서니 에반스 목사는 성명에서 “NBCI와 회원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있으며 PCUSA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회

개하고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에반스 목사는 이어 “PCUSA의 결정은 교회와 교인 전체에 대한 범죄”라며, “이 같은 결정으로 PCUSA는 2천 년을 이어 온 성경 말씀과 전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기독교 교단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PCUSA는 이 잘못된 결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릴)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손현정 기자

그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해 믿음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내고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확증한다”면서 “조용히 목사께서 ‘꿈을 품으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셨다. 이민의 삶이 힘들지만 꿈을 꾸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꿈이어야 한

다”고 설명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미국 땅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면서 “이 일에 쓰임 받으라”고 도전했다. 설교 후에는 행사에 참석한 850여 명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이번 집회는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를 위해 이만호 총회장, 이정환 총무 등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베티·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겐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www.sierra-hospice.com Tel:(213) 380-1100 Cell:(213) 700-6989

박영식 간호부장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 단체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 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차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이영훈 목사 LA 정치 종교계 지도자들과 조찬 회동

KCCD-여의도순복음교회: 지역사회 섬김 위해 MOU



KCCD가 주최한 조찬 회동에 이영훈 목사가 참석해 LA 지도자들과 면담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남가주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25일 면담했다.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의 주선으로 이뤄진 이날 조찬 회동에는 짐 맥도넬 세리프 국장, 데이빗 시겔 이스라엘 총영사, 대니얼 텠 LA시 종교담당관 등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 세실 머레이 종교와 문화센터 선임연구원, 앤드류 벤튼 페퍼다인대학교 총장, 존 데리 호프 국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인 중에는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KCCD 박종대 이사장, 남가주 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 엄규서 회장, 서울기독대 이강평 총장, 이병희 LA카운티 경찰국 채플린 등이

참석했다.

이영훈 목사는 “제게 이런 모임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상징적 행동이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사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이 목사는 “미국에는 22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에는 750만 명이 있지만 우리는 평화의 성령,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번 모임은 종교계와 정치계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교회와 정치 간에 발생하는 이슈에 관해서도 대화가 오고 갔으며 참석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둘 간에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대니얼 텠 종교담당관은 “가세티

시장은 커뮤니티의 주 구성원이 신앙인임을 인지하고 있다. 시장은 종교계의 관심을 알기 위해 다가가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KCCD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섬김에 협력하기로 하는 MOU를 맺었다.

KCCD의 임혜빈 회장은 “우리는 이 MOU를 통해 교회가 그 울타리를 넘어 사회의 빚과 소금으로 역할을 다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소망하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윤형 기자

목사-평신도 함께 하는 아가페 코랄 창단



아가페 코랄의 주요 관계자들이 합창단 첫 모임을 준비하며 한 자리에 모였다.

합과 치유를 꿈꾸고 있다. 다음 세 대를 위해 젊은 목회자들을 돋고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할 계획이다.

이 합창단은 오는 4월 12일(주일)

오후 4시에 대릉장로교회(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에서 첫 모임을 갖는다.

문의) 송규식 목사, 714-699-0210

김준형 기자

남가주 지역에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합창단 ‘아가페 코랄’이 창단됐다.

지난 2년 동안 창단을 준비해 온 이 합창단은 김영대 목사를 단장으로 부단장 허귀암 목사, 총무 정경주 목사, 서기 차권희 목사, 회계 김혜영 권사, 부회계 김순우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장 박종대 이사장, 남가주 그리스도의교회연합회 엄규서 회장, 서울기독대 이강평 총장, 이병희 LA카운티 경찰국 채플린 등이

현재 약 50여 명의 목회자와 교계지도자, 장로·권사·집사 등 평신도들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대 100명까지 단원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 합창단은 찬양으로 교계의 화



찰리 정(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옮겨 짚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2015년 베델의 표어 MISSION 1.8

- 역동적 복음 복음으로 삶을 움직이는 교회
GOSPEL DRIVEN
- 능동적 선교 독창성과 추진력이 어우러진 선교
MISSION INITIATIVE

엘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혼신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7:15 /본당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본당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본당
주일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본당
수요 예배: 저녁 7:30 /본당
토요 헬시바 새벽 기도회: 새벽 6:00 /본당
새벽 기도회: 화~금 새벽 5:30 /본당

담임: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Sr. Pastor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수양관 (949)943-9697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뜨거운 열정의 예배가 있는 교회
서로를 사랑하며 많이 웃는 교회
전도하며 회복 받아야 할 자들을 찾아 인도하는 교회

남가주 새소망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Love God
Love Others
Change the World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08:00
수요청소년예배	오후 0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05:30(화~금) 오전 06:00 (토)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626) 872-2405, (503) 332-1941 / nhcscjason@gmail.com
www.newhopela.org / Facebook: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北에 100개 진료소 건립 박차

겨레사랑 서부지부 창립, 미주 겨레사랑과는 별개



겨레사랑 서부지부가 27일 LA 한인타운에서 창립됐다.

한국 사단법인 겨레사랑의 서부지부가 27일 LA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창립됐다. 겨레사랑은 북한에 기초의료 시설인 진료소를 세우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며 산림 조성, 의약품 공급도 하고 있다. 북한에 100개 진료소를 건립하겠다는 비전 아래 현재까지 5곳을 완공했으며 3개 진료소가 추가로 건설 중에 있다. 현재 북한에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시설조차 부재하며 진료소가 있는 곳이라 해도 녹슨 의료기기 일회용 주사기 재활용 등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 단체는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 진료소를 짓는다. 최근 미주에서는 나성교회(정동석목사)가 나성진료소,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가 나성순복음진료소, 뉴욕우리교회(조원태 목사)가 뉴욕우리진료소, IN2온누리교회(마크 최 목사)가 뉴저지온누리진료소와 뉴욕온누리진료소를 짓기로 약속하는 등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서부지부의 이사장은 진유철 목사이며 대표는 서종민 장로로 결정됐다. 운영위원장으로 이학진 장로, 사무총장으로 박남수 장로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서부에 앞서 2013년 창립된 동부지부는 안정의 목사(퀸즈중앙장로교회 은퇴)에 이어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가 이사장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들은 곧이어 미주에서 3월에 미주 겨레사랑을 창립했으나 이후 한국과 미주 간에 조직 구성과 사역 방향에 대해 의견이 생기면서 현재는 분리됐다. 물론, 지난 27일 창립된 겨레사랑 서부지부는 한국에 있는 겨레사랑의 남가주 지역 지부이며 미주 겨레사랑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미주 겨레사랑의 임덕순 회장은 겨레사랑의 서부지부가 창립된 것에 대해 “어찌 되었든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사역에 충실하면 된다. 이름이 비슷해 혼란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영문명은 다르다”고 말했다. 겨레사랑은 Love One Korea Foundation이며 미주 겨레사랑은 Love One World를 사용하고 있다. 사역에 있어서도 겨레사랑이 진료소 사역, 산림 녹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면 미주 겨레사랑은 소학교 내 양호실 설립 사역, 땅콩 영양제 및 종합 비타민 공급 사역, 방한복 지원 사역 등을 하고 있다.

김준형 기자



25일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에 앞서 오전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다. 강사로는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가 참여했다.

효 대학원, 효행장려법… 최성규 목사의 효 목회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열려



최성규 목사가 자신의 효 목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관점이 아닌 효의 관점에서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전혀 새롭게 보게 됐다고 한다.

구약에서는 이미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란 약속이 있었고 신약에

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며 장수를 약속하고 있었다.

그는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공자의 효가 아니라 공자보다 1천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효의 계명”이라면서 효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부모 공경, 어린이 사랑, 가족 사랑, 나라 사랑, 자연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설명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외에도 그는 성경의 근거를 들어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가족, 나라, 자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효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으로서 영혼 구원 운동, 성령 운동, 말씀 실천 운동이라 할 수 있다”면서 “효를 행하면 행복해 진다.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라”며 세미나 강의를 마쳤다.

김준형 기자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있다.

했다. “우리 목회에 부흥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 희망을 갖고 기다리라”고 했다.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영력은 결국 열정과 끈기”라는 결론을 냈다. 오레곤에서는 매일 거절을 당하면서도 불신자 할머니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 할머니와 그 자녀, 손자녀까지 모두 전도되면서 일시에 개척교회가 수십명으로 부흥한 간증을 전했다. 그는 “열정을 품고 전도하되,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사람 믿고 개척하면 다 도망간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사람들을 보내 주신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조언했다. “신기한 것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노력한 주에는 사람들이 안 오고, 오히려 너무 지쳐서 준비하고 뛰고 안한 주에는 사람들이 몰려 오더라. 미칠 노릇이었다. 그러나 나중에야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또 이태근 목사는 “목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낙망하지 말라”고 강조

김준형 기자

남가주 새언약교회 새생명전도축제

남가주 새언약교회(담임 강양규 목사)가 지난 29일 2015 새생명전도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축제는 2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40일 동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초청해 준비한 행사였다.

이 행사는 크게 1부와 2부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청장년총을 대상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굿뉴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소개했고, 예배의 마지



새생명축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강양규 담임목사

위프레이센터(대표 이수경 사모, We Pray Center) 여성사역위원회 주최로 미주비전교회(담임 이서 목사)에서 뉴저지 글로벌비전교회의 최성숙 권사를 초청해 3월 29일 간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간증했고 앞으로도 자신의 삶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며 간증을 마쳤다.

문소현 기자



최성숙 권사(좌)와 남편 이종철 장로(우). 가운데는 이수경 사모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진정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분야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풀리먼트: 170 W Orangehorpe Ave, Fullerton CA 928333
T.323.737.8888 (영업시간: 9:00~17:00)
T.213.453.6624 (아메리카마켓일구)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한인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 안내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현대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하여 신학적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건강한 이민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제 1차 하계 강좌 개설

일 시 : 2015년 6월 15일(월)~6월 26일(금) 2주간

시 간 : 1교시 10:00am ~ 12:30 pm

2교시 1:30pm ~ 4:00pm

수업진행 : 총 5과목(각과목당 4회 수업)

수업과목 : 현대교회의 목회사역과 성경신학(교수 염광렬 박사)

비교종교학(교수 김용준박사/전 로드아일랜드 주립대학교 비교종교학 교수)

이민교회의 리더쉽(교수 이광진 박사)

기독교 역사관의 종말론적 이해(교수 최희규 박사)

갈등사역(교회분쟁과 갈등 해결 방법) (교수 김용철 박사)

특 강 : 정신질환의 이해와 예방 및 회복의 길

모집정원 : 20명

등록마감 : 2015년 6월 1일

수업장소 : 본교 강의실

수 강 료 : 1주 수업료 \$250

2주 수업료 \$500 (반드시 2주 수료했을 경우에만 수료증 발급)

강 사 진 : 본교 교수진과 외래교수

특 전 : 본 과정 이수자는 본교 D.Min. 과정에서

계속 공부할 경우 학점 취득에 반영이 됩니다.

등록문의 :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11277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3

Tel : (714) 636-1722, (714) 309-7551

E-mail : pastoryckim@yahoo.com

※ 타주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숙소를 알선해 드립니다.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초기 한국 교회는 왜 급성장했을까?(V)



김 인 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한국 초기 교회가 급성장한 마지막 열 번째 이유는 한국 교회는 권징과 치리에 철저한 교회였기 때문이었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 교인들에게 교회생활에서 엄격한 청교도적 훈련을 시켜 교회법에 위반된 경우는 엄격하게 처리하였다.

특히 초기 교회에 문제가 된 두 가지는 복혼(復婚, 翁) 문제와 조상 제사였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翁(妻) 문화였다. 조강지처가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얻기 위해 翁을 얻는 것은 당시 사회문화였다. 조선시대 여인들이 시집을 가면 절대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 오늘의 학상식으로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원인이 남편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전적으로 부인에게 그 원인을 돌렸다. 따라서 부인이 아들을 생산 못하면 당연히 翁을 얻어 아들을 얻으려 했다. 심지어 아들을 잘 낳을 상(像)을 가진 가난한 집 어린 딸을 논 서너 마지막 주고 사다 아들을 낳으려 했다. 소위 민며느리, 씨받이 제도가 그것이다.

아들을 얻으려는 욕망은 단순히 가문을 이어가는 이유뿐 아니라 제사 문제도 따른다. 유교에서 제사는 집안에서 빼어 놓을 수 없는 큰 행사이다. 부모님 기일에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기본이고, 조부모, 증조모, 고조모, 그리고 5대조까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 힘들고 고통스런 작업이다. 게다가 제수 감을 다 챙기기 위해서는 적잖은 경비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제사는 출가외인 딸이 차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아들이 차려야 한다. 따라서 아들이 없으면 자신들의 제사뿐 아니라 조상들의 제사상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자식으로 조상들에게 최대의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아들을 두어야 하는 일은 지상명령이었다. 翁 문화는 이런 배경으로 생겨난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수용되어 사회문화가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일부다처제를 수용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를 정착시켰다. 그러므로 복혼자는 교회 회원으로 용인할 수 없었다.

제사도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자식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사항이었다. 제사 없는 호문화는 상상할 수 없었다. 가톨릭교회에서와 같이 개신교회에서도 조상제사는 교인다면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중요 금기 조항 가운데 하나였다. 조

상 제사를 하는 사람은 결코 교인으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 교회는 제사가 나쁘다는 단순 논리로 금한 것 이 아니고 논리 정연하게 이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사하는 일이 헛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허다한 폐단이 불소하니 시간을 허비하므로 일에 방해될 뿐 아니라 힘을 낭비하며 재력을 모순하고…… 또 자손이 업는 사람들은 곧 翁을 얻나니 이는 더욱이 그릇하는 일이라 집을 망하게 하는 화근인 줄을 아지 못하는도다……”

만일 허비하는 재물로 나라 일을 위하여 행할 지경이면 그 전진할 일이 한량이 업을 거시여들 이에 사람을 교육하는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마음을 우상 섬기는 대 전력하는 거시 엇지 그릇함이 아니리오 또한 허망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금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 조상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 영화를 그 조상에게 돌리는 거시 또한 참람한 죄가 아니뇨.”

따라서 기독교에 입문하고자 하는 자들 중, 翁을 둔 사람이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세례를 주지 않고, 이를 척결할 때까지 기다렸다.

감리교 선교사 존스(G. H. Jones)는 “축첩한 원입교인을 제명한 사건은 우리 교회의 규칙적 관례에 따라 취한 행위라고 말했다.

“본 연회(年會)는 남, 여를 막론하고 복혼 관계자는 감리교회에 입교하거나 재적할 수 없다는 결의를 표명한다.”

이 결의는 교인 훈련의 철저성과 아울러 치리의 엄중성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사회 문화에서 흔한 일이라도 초기 교회에서는 엄격히 금지함으로, 사회 문화 정화와 교회 내의 진리 실천을 위해 권징과 치리가 강조된 사실을 간파할 수 있다.

교회가 이런 문제에 엄격히 대처한 예는 개 교회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조직교회로 출발한 새문안교회의 당회록은 교인들 권징과 치리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남겼다. 교

우들 중에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거나 신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엄중하게 권면하고 그 래도 듣지 않으면 책임을 물어 책벌했다는 기록을 거의 매 쪽마다 볼 수 있다.

1912년 장로회 총회가 창립될 때 북평안노회의 보고에 의하면, “당회들이 교회 다스리는 것은 성경과 장로회 정치를 의지하며 책벌을 거는 혼인 규칙을 위반한 면 음란한 혼인을 잡기 위해 모든 불법 혼인 일에 책벌 혼자가 3백 3인, 혀벌 혼이 1백 50인 출교 혼자 47인이오며……”라는 기록을 남겼다.

한 노회에서 1년간, 책벌이 300명 이 넘고 출교한 자가 50명에 가까운 모습은 초기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의 훈련에 엄격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교인들의 엄격한 훈련이 교회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권징이나 책벌이 없는 현대 교회에 시사하는 바 크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훈련에 노력을 집중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는 수 천 년 동안 내려오는 여러 악습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악습을 제거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신앙을 전작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이 필수적이며 여겼다. 따라서 아무리 전통 문화라 해도 그것이 신앙에 거슬리거나, 인간 삶에 저해되는 일이라면 가차 없이 척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엄격한 권징과 치리 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듣지 않고, 옛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형태를 고정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우리는 한국 초기 교회 성장의 원인을 지난 몇 회에 걸쳐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교회 성장은 인간의 노력과 전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국 초기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말할 수 밖에 없다. 한국 선교 50주년에 마포삼일선교사가 한국 선교의 위대한 성과에 대해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로 이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마지를 행하셨습니다”라고 한 말이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령은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요 인간은 그의 손에 붙잡혀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 박람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로레타 산체스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3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를 설명했다. 이지락 소장(살룸센터), 카니 델 토로 시안 매니저(HOC), 끄를로스 우르키자 담당관(산체스 하원의원 사무실 노인분야 담당).

OC 주민들 위한 건강 정보 및 주택 박람회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상담을 실시하며 실질적 혜택을 받기 위한 면담 약속도 잡을 수 있다. 주최측은 소수민족을 위해 한국어, 베트남어 등 통역도 마련한다.

델 토로시안 매니저는 “커뮤니티를 돋기 위한 다양한 리소스들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라고 소개하면서 “3시간 동안 약 100-150여 명이 참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지락 소장은 “믿을 수 있는 리소스들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게 될 것”이라 기대를 표했다. 우르키자 담당관은 “UCアルバ인 병원, 카이저 보험 등 주요 의료 단체들도 참석해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건강 보험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 문의) 213-380-3700
김준형 기자

동부교협 다채로운 세미나 이어져

동부교협에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4월 16일(목)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나성한미교회(담임 전병주 목사)에서 박영돈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연다. 참가비는 5불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이어서 5월 11일(월)과 12일(화) 양일에 거쳐 선한정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에서 김동일 목사를 초청해 목회자들을 위한 바이블 네비게이션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참

가비는 10불이고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7월 2일(목) 9시에는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에서 정찬균 목사를 강사로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8월 28일(금) 저녁 8시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에서는 해롤드 김 목사를 초청해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는 패밀리 워십 서비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Holy Wave: 오전 10:15

대학청년부 주일예배: 오후 2:00

토요연합예배: 새벽 6:30

새벽예배: 오전 5:20분(월~금)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 590-3722 / F.(909) 548-3722
www.eastsarang.com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째매가 되셨도다
한인소망교회

윤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후 12:45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CA 90274
T.(310) 715-9902

예수 부활 하셨네
영광빛복음교회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인터넷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

초등부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8:30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714) 833-2568
www.daekwon.org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한마음제자교회

곽부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한글학교: 오전 10:00(주일)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6:00(토)

500 Shatto Pl. #410
LA, CA 90020
T.(213) 321-4433

성찬예식의 제정과 의미

고린도전서 11:17-3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언약의 피리” 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신약 끝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피만으로 영원한 구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 임시 속죄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들도 예수님의 피로써 영원히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땅 위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언약의 피, 대속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을 위해 몸을 뒤집으시고,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예식입니다.

1. 성찬예식을 대하는 고린도교회의 모습

본문의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신앙체질이 아니고 육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가는 목적은 사회적 지위나 명분이나 또 가진 것을 자랑하고 유세떨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인들을 데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높게 꾸며 만들고는, 자기는 임금처럼 앉아서 하인들을 시켜 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한 성찬예식의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해서 거드름을 피며 먹고 마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도 그들에게 밑게 보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평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찬예식의 의미는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세상 조건을 교회 안까지 가지고 와서 행세하고 거드름피고 분위기 잡으려는 못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고린도교회에는 사색 패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네 패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사분오열되어 교회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모함하고, 기를 꺾고, 상대방을 밟고 위에 올라서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회개해서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것이고, 영원히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체험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분쟁과 다툼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런 체험적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찬예식은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전해 듣고는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나

하면 이들에게는 성찬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찬예식을 행할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배가 고파하고, 어떤 이는 포도주에 취해서 혀소리하고 주정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성찬입니까?

성도가 성찬예식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예수님의 내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언약의 피를 대신 흘리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맞을 때를 그 분이 대신 맞아주시고, 내가 죽어 지옥가야 할 죄 값을 예수님의 몸으로 대신 벌 받아 주신 것을 생각하며, 아주 진지하고 겸손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이제부터 내 남은 평생은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에 내 십자가 지고 갈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 고통과 죽인다는 위험 앞에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성찬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2. 성찬예식을 대하는 성도의 두 가지 태도

사도 바울은 23-26절을 통해 성찬예식을 대하는 성도의 두 가지 태도를 밝힙니다.

첫째는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이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떡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언약의 피를 흘려 회개하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까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임까지 당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다 보면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전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은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3. 성찬예식에 잘못 참여함으로 받는 벌

27절에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예식에 참석한 사람은 먼저 자기 를 반성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또한 원수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 화해하고, 또 남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기나면 찾아가서 보상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28-29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살피고 철저히 회개한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그저 아무렇게나 대하여 죄를 가지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성찬예식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결과만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한 병든 자 역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사주와 조종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이 인치시고 인도 하심 따라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맡기고 의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잠자는 자는 신앙과 영적인 소망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며, 육신이 세상 일에 빠져 얹매여서 허우적대고 있으면서 영혼은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허약한 것, 병든 것, 믿음이 잠들어 버린 것, 이 세 가지 상태는 신앙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다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둘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고 죄의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의 마음에 드실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33-34절에 배가 그렇게 고포다면 집에서 먼저 먹고 와서 성찬예식은 바른 자세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예식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므로 순서를 기다려 아주 진정성 있는 영적인 소망의 신앙 자세로 성찬예식을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왔다고 성찬예식의 음식을 먼저 먹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성찬예식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로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예식을 진지하게 참여하려고 온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쪽 같은 책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성찬예식을 행하면 한 주간이나 한 달이나 일 년은 성찬예식 한 효과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이 영적인 가치와 예수님 중심의 생활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예식에 참여한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세상 조건을 위해 영적인 소망은 하나도 없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 지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이 성찬예식을 왜 참석했는가하고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 인격도 없고 의리도 없고 예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는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없는지를 살피고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를 각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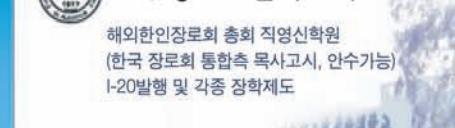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월요일 오후 5시 /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LA 미주 기독교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7시30분
			AM1650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LA 미주 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 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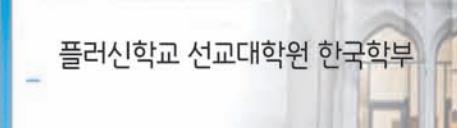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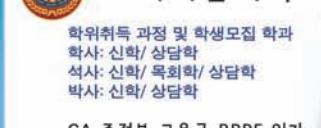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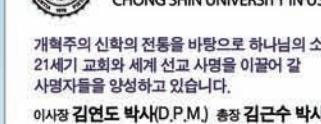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톤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http://absw.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톤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http://absw.edu)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학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 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 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쇼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담임목사 청빙

창립 38년을 맞이한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Ventura County Korean Presbyterian Church)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속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조건 :

- 정규신학교 (M.Div학위이상)을 졸업하신분
- 3년이상 이민목회 경험이 있는 분(Full time)
-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교단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1. 이력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 (사진포함)
2. 신앙고백과 목회계획서
3.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4. 목사안수증명서
5. 추천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분에 한하여 요청2부(밀봉날인과 추천인연락처)와
6. 최근 6개월내 설교 2회

제출마감일 :

2015년 5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보내실 곳 :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821 Alta Vista pl. Camarillo, CA93012, djycorp@yahoo.com

기타 :

- 서류는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 우편제출시 E-mail주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사조에 굽복한 동성결혼 수용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미국의 최대 장로교 교단 중의 하나인 PCUSA가 최근 동성애 수용을 교단의 공식 입장으로 결정하였다. 동성애 수용 논란으로 이미 2012년에 120여 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하여 새 교단인 ECO를 세웠으며, 앞으로도 탈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교단 내 보수적인 성향의 한인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동성애 수용불가 원칙을 신문지상을 통해 확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그 교단의 혼돈과 악화는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KAPC 교단은 한인교회로 이루어진 장로교 단인데, 이번 5월 브라질 종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려고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창세기 2:24, 마태복음 19:5, 그리고 예레소서 5:31에서 3번이나 확인된 가르침이고, 이는 시대의 변화에 의하여 바뀔 수 없는 인간창조와 신성한 결혼 규범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필자의 모교인 풀러신학교에서 동성애 수용논란이 있었기에, 그곳의 교수들과 함께 매스컴 인터뷰에 참여한 적이 있다. 학교는

LGBT, 즉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양성애)과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전환)에 대한 목회적 허용을 LGBT에 대한 신학적 허용으로 생각한 일부의 오해와 문의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위하여 마련한 자리였다. 모교는 필자가 알고 있던 것처럼, LGBT에 대한 신학적 불관용의 원칙을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재천명하고, 이에 대한 토론 동아리의 논의를 관리하고 감독할 것을 약속하였다.

교회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서 회심하고 회복되어 성화되어지는 공동체이다. 필자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출석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적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그 이유로 교회에서 떠나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배려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동성애적인 경향을 일방적으로 정죄하지 않음과 아울러, 이를 이해하고 상담하고 회복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동성애 혹은 양성애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훌륭하게 한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 가가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Henry Nouwen)도 동성애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서 장애자를 도우면서 평생 독신의 삶을 살았다.

교회가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유린”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포기하고 동성결혼이라는 시대사조를 신학적으로 수용한 것은 꼬리로 몸통을 흔들도록 허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이유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염교회

필자의 큰 딸 베기가 2년 전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적인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적이 있다.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밖에 없다. 그 후 그 아이는 콜롬비아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한 후 현재 유엔 유니세프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 “아빠, 내가 지금 25살인데 26살이 되기 전, 일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으니 아빠가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 딸에게 “어떤 답변을 줘야 할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20대 초반에 군대 가서 일정 기간을 군인으로 나리를 지키는데… 베기가 군대갔다 생각하고 응원해 주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베기는 그 때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벌써 신구약을 5번 이상 읽고 암송도 하며 오로지 말씀만 불들고 3일 금식, 7일 금식, 21일 금식을 하였다.

필자도 목사 이전에 한 아이의 아빠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딸아이를 야단치며 “평범하게 예수 믿어라”라고 했더니 “아빠가 일년동안 허락했으니 기도하면서 묵묵히 응원만 해 주세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떨찍 뛰면서 “그것은 절대 안된다”고 강력하게 말렸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의 자녀가 40일 금식한다고 했어도 그랬을까? 아마도 대단하다며 힘껏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

딸아이는 허락해 달라며 거의 애원하였다. “아빠, 40일 금식기도하는 이유는 첫째, 25살 때까지 신앙 안에서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둘째,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결단 셋째, 단기 선교와 유엔 프로젝트를 위해서 넷째,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 예수님이 순종을 본받고 싶어서예요”라는 것이다.

필자 부부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1/4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금식한다니 말이다.

그렇지만 40일 금식을 선뜻 허락할 수는 없었다. 온 가족이 다 찬성하였지만, 필자는 2주 정도만 해 충분하다고 끝까지 말렸다.

결국 딸아이는 지난 2월 6일부터 몰래 온전한 금식기도를 시작하였다. 금식 시작 후 2주 후에 알게 된 필자는 30일째 되는 날까지도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31일째 되는 날부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키시는 것

임을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말았다.

금식 끝난 3월 17일에는 하루 종일 온 식구가 함께 금식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를 체험하였다.

그 날 이사야 58장 말씀을 전하면서 딸아이에게 몇 가지를 부탁했다. 첫째,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둘째, 기도 후 화를 낼 일이 생겨도 감정을 잘 다스려야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능력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용해라. 넷째, 금식 한 만큼 40일 보식할 때 절제 또 절제해야 한다. 예배 후 온 식구가 돌아가며 금식을 지켜본 감사와 축복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눈물의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딸아이의 금식을 지켜보면서 아빠로서, 목사로서 부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큰 도전을 받기도 했다. 누구나 말은 잘 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실천하는 영성”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졌지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딸아이를 불들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불들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앞에 순종해야 한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고 세상을 너그리 이길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능력도 주신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가정마다 넘쳐 나기를 소원해 본다.

주여 구원하소서



김 세 환 목사
LA한인연합감리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마술같은 문구가 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구절을 되뇌일 때면 어김없이 움직이셨다.

구약 시대 최고의 사건인 출애굽도 종살이에 지친 이스라엘 민족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울부짖을 때에 시작된 것이다. 수많은 사사들과 예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을 훈내주고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도 그들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릴 때였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눈물로 절규하던 애굽 여인 하갈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었다. 앤학교례 샘터에서 털진한 삼손이, 미스바 골짜기에서 목놓아 구원을 울부짖던 사무엘이 그리고 벽을 앞에 두고 사흘 동안 주야로 부르짖던 히스기야 왕이 모두 같은은

외치며 구원을 갈구하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들이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던 외투와 힘껏 흔들었던 종려나무의 가지는 구원에 대한 그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7년의 대환란을 마무리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악을 진멸하시는 궁극적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때문이다. 주님을 움직이는 간절한 구절 “우리를 구원하소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핵심 학문이기도 하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성도들의 영원한 기도이다.

‘호산나’는 매년 종려주일에만 목사들의 설교를 통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아련한 메아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1년 365일을 움직이는 거룩한 몸짓 고백이다. 그 신비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산성	중성	셀라케어
3.5	6.0	
7.0	8.5	
9.0	9.5	
10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카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자폐증.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셋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해소.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 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갈아 복용 후 심한 호흡 반응 겪고 원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원래.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 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자발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질. 간질증세도 호전됨. 복용 후 190g으로 125g로 되고 사역,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 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속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물에 있던 큰 흙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님(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피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우울증.야뇨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뇨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난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직전의 다리와 윤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러지.우울증.불면증.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담석.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끈여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 관절염.변비.생리통	소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당뇨.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기죽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치고 손 발끝이 너무 같아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며, 기죽과 의사 소통이 가능해지고 상태 좋아진 정대진(16세, 엘에이)
췌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난면서부터 기적적으로 췌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회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각(뉴저지)
모유 아주적음.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어 좋아졌으며, 신생아가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둘둘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밀엔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끌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헌장도 들기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앓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어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회장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물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주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다니고 있음. 최정석(50세, 엘에이)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 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건강과 성경 이야기 47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
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년부년이란 잘 되었던 시대라는 뜻
입니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했던 내용
은 여호수아가 9장3절로 3. 기브온 거민
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4. 피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해어진 전대와 해어지고 찢어져
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낚아 기운 신을 신고 낚은
덫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
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
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
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
제 우리와 약조하시이다 11. 무리가 그
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것을 여호
와께 물지 아니하고 12.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
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
하였다라 16.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
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
한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
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
망하니 17.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
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으족 이제 그들을 건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였는데, 사울이 그들을
죽여서 이런 흉년이 들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사울의 자손7명을 희생시킴으로
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1장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
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
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
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이말씀의 내용
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고 잘 나가던 때에 기근, 그러니까
흉년이 생겨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니 옛날 모세이후로 여호수아가 가
나안땅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땅을 정
복할때 기브온에사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
겠다고 약속을 한적이 있는데, 약400년후
이스라엘의 첫번째 왕인 사울이 자기 민
족에게 잘 보이려고 약속을 어기고 이 사
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를 사서 흉년이 들게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1:1 **다윗의 시대에 년부년 삼**
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시온약국	213.382.6485	LA별문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뉴욕, 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문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너하임	714.469.5809	시애틀	206.331.6655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지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롱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일백화점)	972.620.2900
LA 6가 베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풀로리다/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			

필리핀 ‘생명의 축제’ 약 6만 명 참석해 1만 명 회심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새롭게 형성 중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전도집회 모습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제공

기톨릭 국가인 필리핀이 신앙의 부흥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다고 카리스마뉴스가 보도했다.

카리스마뉴스 칼럼니스트인 에릭 오그伦은 “필리핀 내 가톨릭이 태동한 세부에서, 주민들이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갖는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필리핀의 트리폰 브래디(Trifon Brady) 목사는 “전도의 측면에서 이곳은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 종교를 따르려고 하는 점에서 주민들이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

았다”고 전했다.

그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에서 로잔대회가 열렸을 때, 이들은 부흥을 경험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장소가 온전히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7부터 29일에는 세부에서 ‘생명의 축제’가 열렸다. 복음주의자 월 그라함(Will Graham) 목사가 이곳을 방문해 설교했으며, 3 일간 약 6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특히 주일에만 3만 명이 넘었다.

토요일 오전에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오후

에는 음악·연극·환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설교 시간이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세부의 마이크 라마(Mike Rama) 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리스도선교회(Christ Commission Fellowship)의 토니 아봉(Tony Abong) 목사는 “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며 무척 기쁘다”면서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분은 필리핀인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특히 그분이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축제 기간 동안 약 9,700여 명이 회심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러한 반응이 내게 큰 기쁨을 준다. 과거에 죽었던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다”면서 “바로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심한 이들이 지역 교회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래함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성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혜진 기자



2014년 10월 5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미국항공센터와 빅토리공원에서 열린 하베스트 아메리카 집회의 모습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美 회의주의자들 “성경에 대한 불신 강해”

젊은이·고학력자 다수, 여성 비율도 늘어



2014년 10월 5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미국항공센터와 빅토리공원에서 열린 하베스트 아메리카 집회의 모습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Barna Group)이 2015년 미국 무신론자 현황 연구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미국 성인의 25%가 자신을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2가지 이유로 ‘성경에 대한 거부감’과 ‘믿음 부족’을 꼽았다.

이번 연구는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러한 이들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non-practicing) 기독교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5%는 회의주의자로 분류됐다. 보고서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무신론자),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에 열려 있는 사람들(불가지론자)’로 분류했다. 회의주의자 가운데 약 1/3에 해당하는 이들은 “살면서 한 번도 교회에 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요한 원인으로 ▲성경에 대한 거부감 ▲교회 내의 믿음 부족 ▲세속적 세계관이 강화되는 문화 등 3가지를 꼽았다.

회의주의자들은 ‘성경은 거룩하고 초월적’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중 2/3가 성경을 단순히 다른 자서전과 같은 수준의 지혜와 권위를 담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IS, 음식·생필품 훔친 어린이들 ‘손 절단’

이라크 모술 탈출 주민들 IS 공포 정치 증언

이슬람국가(IS)의 점거 지역 내 ‘공포 정치’가 어린이들에게 예외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IS가 장악한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탈출한 수니-시아파 주민들과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이 언터뷰에서 IS가 어린이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학대 행위들을 증언했는데, 이 가운데는 생필품이나 장난감을 훔쳤다는 이유로 어린이 4명의 손을 절단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름은 SA라고 만 밝힌 어린이는 아직까지 모술에 살고 있는 친구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소개했다. 이 편지에는 “어제 IS 대원들이 11살, 12살, 13살, 16살인 친구들의 손을 잘라 버렸다. 이 중 한 명은 장난감을 훔쳤고, 또 다른 한 명은 전선을 훔쳤다”고

고 말했다.

SA의 오빠인 이브라힘은 또한 IS가 음식을 훔친 어린 소년의 머리에 총을 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을 현지 언론에 보여 주기도 했다.

이 언론은 IS가 모술을 장악한 이래로 도시 내에서 음식이 부족해지면서 주민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소년이 음식을 훔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영상에서 어린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빌지만, IS 대원들은 소년을 죽인 뒤 이 아버지 역시 총살한다.

자신을 RS로 밝힌 여성 주민은 IS가 모술에서 이슬람 율법을 어긴 이들에게 참수형, 투석형, 십자가형, 총살형 등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끔찍한 처벌은 어린이들에게 자행되고 있어 앞서 1월에는 TV로 출구 경기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3명의 청소년이 처형당한 사건 역시 보도됐다.

지난 1월 12일 모술 시내의 알라르무크 지역에서 이들 청소년 13명은 TV로 이라크와 요르단의 아시안컵 예선 경기를 시청하던 현장을 벌각당했다. 이들은 IS 대원들에게 끌려가 곧바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IS는 처형 이후 죽은 청소년들의 시신을 거리에 전시했으며, 가족들의 접근을 금지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보도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IS가 모술에서 벌이고 있는 이 같은 살해 행위는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리아 지역 테러 활동 감시단체인 시리안옵저버토리의 인권 담당 디렉터인 라미 암델 라흐만은 “IS는 지금 점거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반대하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손현정 기자

라이베리아, 에볼라 환자 발생

라이베리아에서 지난달 20일 한 달 만에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2명의 에볼라 의심환자 발생했다고 한 관리가 밝혔다.

에볼라관리시스템의 소장 대행 프란시스 카테는 그 가운데 1명은 이번에 에볼라 확진을 받은 한 여성

이지희 기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풍성한교회

박효우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2911 W.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213)381-9490 / F.(213) 385-9191

**그리스도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째매가
되었도다**

UCS 신학대학교

아브라함최 총장

1543 W.Olympic Blvd. 3F.
LA, CA 90015
T.(213) 434-3456
www.ucsuniversity.com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818) 894-9266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시카고벧엘교회

최병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젊은세대와 함께하는 예배: 오후 1:30
아동부/중고등부 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4240 W.Irving Park Rd.
Chicago, IL 60641
T.(773) 545-2222

재산 포기 후, PCUSA 떠나 교회 개척

전 시애틀 명성교회 성도들, 4월 1일부터 인터콥 비전센터에서 예배



시애틀 명성교회 창립 18주년 기념 및 김범기 목사 부임 감사예배 사진

시애틀 명성교회 김범기 목사와 성도들이 PCUSA 교단과 교회를 떠나 개척을 결정했다.

시애틀 명성교회는 지난 29일 공동의회를 열고 PCUSA 교단 탈퇴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총 55명이 참여해 찬성 51표, 반대 4표로, 찬성한 김범기 목사와 당회원 및 성도들이 PCUSA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단, 교단 탈퇴를 반대한 사람들은 PCUSA 교단에 잔류하고, 시애틀 명성교회 이름 역시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 명성교회는 계속 PCUSA 교단 소속 교회로 남게 됐다.

김범기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린우드에 위치한 인터콥 비전센터에서 예배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범기 목사는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진리를 보존하고, 신앙을 지켜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된 믿음의 계승을 위해 성도들이 교회 건물과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와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됐다”며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의 정의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진리를 두 사람으로 바꾸는 죄악을 용납할 수 없음으로 진리를 보존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범기 목사와 성도들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다. 성도들이 19년 동안 헌신하고 예배했던 교회였다. 교회 구입을



김범기 목사

위해 집을 팔아서 현금을 했던 성도도 있었다. 더구나 1년 3개월 전 김범기 목사 부임 이후 교회가 안정되고 있었다.

김범기 목사는 “PCUSA 교단과 교회에 남아 교단을 개혁해야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나오게 됐다”며 “성도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적인 문화에 타협해 진리를 바꾸는 일에 동의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교회를 나온 성도들은 인터콥 비전센터 (20829 HWy 99 Lynnwood WA 98036)에서 4월 1일부터 예배 드릴 예정이다.

김브라이언 기자

뉴욕전도협의회 회장 이·취임예배 드려

신임회장 오태환 목사, “전도협 활성화에 최선 다할 것”



뉴욕전도협의회 제11회기 회장 이취임예배가 3월 25일 은총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뉴욕전도협의회 제11회기 회장 이취임예배가 지난달 25일 오전 뉴욕은총장로교회(담임 오태환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영환 목사(5대 회장)의 사회로 지인식 목사(9대 회장) 기도, 뉴욕남성목사협창단 특별찬양, 김석형 목사(롱아일랜드성결교회) 설교, 하정민 목사(뉴욕전도협의회 회계) 헌금 기도, 조애실 사모 헌금특송, 김승희 목사(교협 증경회장) 축도, 현영갑 목사(뉴욕전도협의회 총무) 광고 등의 순서로 열렸다.

2부 이취임식은 현영갑 목사의 사회로 김원기 목사(교협 증경회장) 시무기도, 허윤준 목사(직전회장) 이임사, 오태환 목사(신임회장) 취임사, 이제덕 목사(교협 회장) 축사, 전희수 목사(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축사, 박상일 목사(뉴욕남교회) 권면, 감사패 전달 허윤준 목사, 김수태 목사(뉴욕전도협의회 3대회장) 특별광고, 양승호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만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임회장 오태환 목사는 “새로운 신임회원들을 적극 영입하고 여성 회원들을

늘려 전도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면서 “뉴욕전도협의회가 새롭게 힘을 얻고 나가야할 시점에서 기도하면서 회원들을 섬기고 교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직전회장 허윤준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 회기동안 회원들의 협력에 감사사를 드린다”면서 “전도협의회를 통해 뉴욕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석형 목사는 ‘사명자의 길’(행 20:22-2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통해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들이 되자”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뉴욕 땅에서도 재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도협의회 제11회기 임원은 회장 오태환 목사, 총무 현영갑 목사, 회계 하정민 목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서기와 감사는 차후에 임명한다. 전도협의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 만나교회에서 박재열 목사(한국작은교회 살리기운동본부 대표)를 초청 지역교회 살리기 운동 세미나를 연다.

교회명	주소	예배시간	담당목사	전화번호
갈릴리선교교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주일 오후 4시 새벽예배 오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한천영 담임목사 토요연합새벽예배 오후 6:20	(323) 735-6412 / gmccchurch.com
나눔과 섬김의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주일 오후 4시 새벽예배 오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 목, 금)	엘리야 김 담임목사	(323) 272-6031
나성순복음교회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1부예배 오전 7:4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새벽예배 오후 5:30(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323) 913-4499 / F.(323) 913-4494
나성제일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김광삼 담임목사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부 오후 7:30(화~금) 600도	(323) 388-7101
라성빌라델비아교회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이영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714) 319-2234
나성동산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213) 487-3920
한우리장로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323) 702-6709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30(월~토)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점부 베네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상부 메디칼	(323) 428-7878/F.(323) 932-0788/kuinhol@hanmail.net
구인성장로교회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주일예배 8:00 금요예배 7:30 2부예배 11:00 새벽예배 6:00	현현섭 담임목사	(323) 428-7878/F.(323) 932-0788/kuinhol@hanmail.net
임마누엘선교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0:30 새벽예배 오후 6:00(월~토)	신종길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5:30(월~금)	(323) 766-9922 / www.laimch.com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Tel.(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세하늘 교회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신승훈 담임목사	T.(323) 749-4500 / F.(213) 749-6700
한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한명수 담임목사	T.(323) 667-9920
청운교회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이명수 담임목사	T.(323) 749-4500 / F.(213) 749-6700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한마음제자교회 설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T.(213) 321-4433
LA 선교교회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6:00(월~토)	박성도 담임목사	T.(213) 435-0380/(213) 435-0094 / www.missionla.org
LA 사랑의교회	3251 W 6th St., Los Angeles, CA 90032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후 9:00 2부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6:30(월~금)	김기섭 담임목사	T.(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후 11:00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본성전 : 75580 E Ramon Road, Thousand Palms, CA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 표어 : 산과 물에 빛을 비춘 교회(이5: 45)
1. 민족을 넘어서 2. 성장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후 7:45 중고등부 예배 오후 11:45
2부예배 오후 9: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월~금)
3부예배 오후 11:45 오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령의 나눔터(매주 토) 오후 10:00-11: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사무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후 6:00(수, 토)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ganachurch.hompee.com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후 9:3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대홍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친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새우부 새벽예배 오후 7:00(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불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EM예배 오후 10: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스페인예배 오후 10:00 오후 6:30(토)
한국어 오후 10시(월~수)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분당)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밸리체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후 8:00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토, 6:00
1951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밸리체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후 8:00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토, 6:00
1951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루준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EM주일예배 오후 9:30
2부예배 오후 11:00

최호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5:30(월~금) 6:00(토)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온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혁 담임목사
비전체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후 5:30
12631 E.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조인 담임목사
세리토스체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후 9:30 / 11:30
목요성경예배 - 저녁 4: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삶으로 살기'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교사예배(주일) 오후 9:45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
유튜브주일예배 오후 11:00 구보모임 예배 1회
중고등부주일예배 오후 11:00 한글학교(토) 오후 10:30

조인 담임목사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기독일보



동부한미노회가 3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단의 동성결혼 합법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목회자의 양심을 존중한다는 유권해석에 의해 개교회가 특별히 달라지는 상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성애 합법 결정 – 한미노회가 대안”

동부한미노회, 동성애 반대 입장 분명히 밝혀

미국장로교(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단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들이 소속돼 있는 동부한미노회가 지난달 25일 오후 1시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동성애에 관한 교단 헌법에 제약을 받지 않는 ‘노회 우선’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 교회와 목회자의 신앙양심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는 유권해석에 의해 동성애 주례 거부 등의 의사를 제약없이 펼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는 교단 헌법 차원에서의 동성결혼 인정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외부적인 우려의 시각을 불식시키는 발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동부한미노회는 “이 개정안은 결혼을 침해하는 목사의 양심과 또 결혼장소를 허락하는 당회의 양심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여, 어느 누구도 결혼 침해와 건물 사용을 강요할 수도, 강요당할 수도 없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따라서 결혼이 합법화되는 주에 속한 목회자들과 장로들이라도 신앙 양심에 따른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법적 소송 및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해석했다.

동부한미노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인 교회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신앙양심에 따라 기존에 운영해오던 그대로 목회를 해나가면 된다. 결혼 정의에 대한 교단의 헌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앙양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불어 있어서 사실상 개교회의 목회환경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은 한미노회로의 이전을 권했다. 한미노회는 한인교회들이 언어, 문화적인 이유로 PCUSA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비지역 노회로 대서양한미노회, 중서부한미노회, 동부한미노회 3개가 존재한다. 동부한미노회의 경우 최근 정기노회에서 투표를 통해 확인한 바, 노회원 전원이 동성애를 반대했다.

노회 이전과 관련해서는, 동부한미노회는 “노회의 상위 개념인 ‘대회’ 내에서는 개교회의 자유로운 노회 이전이 가능하며, 현재 경계가 인접한 대회로의 이전까지도 허용이 되고 있다. PCUSA 내 전체 한인교회 중에 한미노회에 가입돼 있는 교회는 1/3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부한미노회는 Q&A 자료를 미리 배포해 결혼정의를 변경한 이번 PCUSA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바른 해석을 알렸다.

김대원 기자

여성목회자협 정기예배, 친목과 교류 활성화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3월 정기예배를 뉴욕퀸스교회에서 드렸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가 3월 정기예배를 지난달 24일 뉴욕퀸스교회(김수경 목사시무)에서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나명자 목사(회원관리분과)의 사회로, 박드보라 목사(기도분과) 기도, 남승분 목사 성경봉독, 김수경 목사(음악분과) 말씀, 여목협 중창단 특별찬송, 심화자 목사(천교분과) 봉헌기도, 김정숙 목사(총무) 광고, 권캐더린 목사(서기) 합심기도, 전희수 목사(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열렸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는 전희수 목사의 회장 취임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정기예배를 드리면서 미주 내 한인여성 목사들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 이날 김수경 목사는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17-44)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소망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예배 후 회원들은 합심기도를 통해 6회기 주요사업으로 예정된 5월 목회자의 날 행사와 6월 캐나다 토론토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했다. 2부 사역의 나눔시간에는 이은희 목사(NJ지역 협동총무, 푸른하늘교회)의 Well Balanced Leadership 이란 제목의 강의가 있었다.

O.C./얼바인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오전 9:30, 11:30
한어대체찬양부오후 2:00 세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erape Ave., Buena Park CA 9062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일유아원 오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업 담임목사

금요예배(GLMC) 주일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세벽기도회 수요일 저녁 7:30
(토)오후 6:0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Puent)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새벽 6:20
4부 오후 2:00(절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하귀암 담임목사
세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2부 주일예배 오전 8:00
수요기도 저녁 8:00 본당
3부 주말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교동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김한효 담임목사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714)821-9900,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오후 12:30
교육부예배 오후 12:30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교수

김용철 담임목사

박재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세벽예배 오전 5:30(월~금)

열바인중앙교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18422 Culver Dr, Irvine CA 92612
T.(714)309-7551
Pastorykim@yahoo.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주야치유부, 유초등부, 종교동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714)808-9191 / www.missionw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15:00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후 11:30
4부 오후 2:0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세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설교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독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금 오후 5:30pm
주일 아미 예배 : 오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이승필 담임목사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모임 7:20 PM (상경 66권책별성경공부) 새벽기도회 (화~금) 9:30 P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인터넷 생방송예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15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후 11:45
주일4부예배 오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후 5:30
토,주일 오후 6:0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후 1:00(본당)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주일상공부 오후 3:00 이스파엘 세미나 : 매일 첫째주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최국현 담임목사

한기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온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야 선교회-성지순례, 정탐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714)351-0124(Cell), (562)475-4323(Church)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온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8: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10:30
4부예배 오후 2:00

주혁로 담임목사

한기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회부예배 오후 2:30
영어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화요종교예배 오후 7:30
토요예배 오후 7:30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10:30
4부예배 오후 2:00

김철민 장로

분노, 조절과 극복 어떻게 할 것인가?

순간적인 분노 폭발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 자각증상 알면 피할 수 있다

지구촌이 시끄럽다. IS의 잔인한 살인만행도 계속되고 있다.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는 총격사건으로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생을 달리하는 어이없는 소식도 꼬리에 꼬리를 물며 우리들을 우울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 프랑스 남부 알프스산에 추락하며 1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일 저가 항공사 저먼윙스 여객기의 추락이 어이없게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 부기장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비행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기도 하다. 가까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회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사전 예방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이에, 한인 커뮤니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많은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러한 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별히 LA카운티 정신건강국(한인당 안정영 정신건강 서비스 코디네이터)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두 달 간격으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하며 분노 조절 실패로 야기되는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그 결과로 초래되는 치명적인 여러 가지 사회문제 극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6일에는 '분노, 조절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같은 장소에서 '정신건강 세미나'를 열어 많은 도움을 주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100여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며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실제 목회 현장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사역자들이 대부분인 것도 이 세미나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 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 문제 가 바로 정신적인 문제에 많은 부분 원인이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올해 LA카운티로부터 심만불의 지원금을 받아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건강 예방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YNOT(대표 스텔라 김)의 루미 정 카운셀러가 강사로 참여해 세미나를 인도하며 참석자들을 만족시켰다.

정 카운셀러는 페이퍼 자료 제공과 실례 동영상 등을 통해 분노 조절과 그 극복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노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뿐이지 나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따라 그 폭발 시점을 사전에 깨닫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즉, 감정의 노예상태를 일컫는다.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의학적으로는 뇌의 전두엽에 베타파가 강해 진다. 정상인에게는 베타파가 아닌 알파파가 강하다.

그런데 이 분노는 일정한 단계를 거쳐 밖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그 폭발 시점을 사전에 깨닫고 조절하게 되면 분노 폭발로 인한 극단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손발저림, 뒷목이 뻣뻣함, 어지러움증, 심장박동의 빨라짐, 위장의 통증, 눈꺼풀의 떨림 등의 신체적 자각 증상이 먼저 발생하는 것이 일

반적인 신체적 전조 현상이다.

분노의 종류로는 첫째, 순간적으로 오는 돌발성 분노(대부분 화낸 것을 후회하게 됨) 둘째, 피해의식이 잠재해 있는 잠재적 분노 셋째, 전쟁이나 학대 등의 피해경험이 있는 생존형 분노 넷째, 고부간 갈등 등 참을 수밖에 없는 체념성 분노 다섯째, 자신의 수치심을 누군가 자극할 때 폭발하는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여섯째, 사랑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분노 등으로 나타난다.

분노의 단계를 보면 분노없음-> 거슬림->짜증->열받음->화남-> 격노->광분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 때, 앞서 말한 신체적 전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정적 믿음->분노행동->반박->생각 등으로 진행되는데, 반박 단계에서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고 만다.

분노는 육하고 치밀어 오를 때, 혹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주최 '정신건강 세미나' 개최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는 인정 영 코디네이터(오른쪽)와 세미나 강사를 파견한 비영리단체 YNOT의 대표 스텔라 김(왼쪽)

또한 적극적으로 공감하려는 노력도 분노를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

재이고 싶

어 하는

욕망이 있

기 때문이

다른 운전자는 그 이후로 운전 중 화가 나도 3초만 더 꾹 참자하며 실천해 웃겼더니 점점 화나는 강도가 약해지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연습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노력 등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화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이 자제될 것이다.

한편, LA카운티 정신 건강국에서는 사회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꾸준히 제공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무료 핫라인 1-800-854-7771(한국어 서비스 가능)를 이용하여 자세히 문의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은 그 직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점에서 일단 멈추고 분노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되집어 본다. 그리고 분노 표출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 즉, 분노 인식 노력을 하도록 하면 분노 자체에 도움된다.

실제로 분노를 잘 참지 못하던 사람이 의지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반복한 결과, 분노가 폭발하여 밖으로 표출되는 현상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거의 화를 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당연히 분노 폭발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피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분노에는 '손해'라는 대가가 꼭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화내기 전에 3초만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크게 도움된다.

실례로 분노를 잘 참지 못하던 어떤 운전자가 어느 날 프리웨이 주행 중 난폭운전자를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해 똑같이 대응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간접 경험한 또

다.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기분은 기분하려 노력해 본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게 된다.

분노에는 '손해'라는 대가가 꼭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화내기 전에 3초만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크게 도움된다.

실례로 분노를 잘 참지 못하던 어떤 운전자가 어느 날 프리웨이 주행 중 난폭운전자를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해 똑같이 대응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간접 경험한 또

다.

기간은 4월 13일-17일, 시간은 오전 8시-오후4시, 장소는 나성영 락교회 은혜관(1721 N. Broadway, LA, CA90031), 문의는 858-848-1766 또는 323-488-5800, 등록비 450불(자격증 취득을 원할 경우이며 학생은 350불) 또는 40불(수강 및 교재비)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기 문의처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가정폭력 전문상담자 40시간 기본교육 워크샵"

서던캘리포니아세미너리 주최 · YNOT 후원, 한인 커뮤니티 돋기 위한 프로그램



가정폭력 전문상담자 40시간 기본교육 워크샵에 대해 설명하는 관계자들.

가정폭력으로 인한 한인 커뮤니티의 사회문제 발생률이 점차 심해져 가고 있음을 우려하여, 가정폭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일조하고자 서던캘리포니아세미너리가 주최하

고 YNOT이 후원하는 '가정폭력 전문상담자 40시간 기본교육 워크샵' 실시를 위한 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서던캘리포니아세미너리 엘에이 분교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 학교의 한국어 디렉터인 사무엘 리(왼쪽) 박사,

상담심리학과 학과장 겸 샌디에고 RHOMBUS 소장인 줄리 헤이든 박사(중장), YNOT 대표 스텔라 김(오른쪽) 등이 참여했다.

사무엘 리 디렉터에 의하면, 이

워크샵은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가해자 그룹 상담과 운영을 위한 필수 과정 제공을 통해 수료자들이 가정폭력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곧바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YNOT의 스텔라 김 대표는 이 워크샵은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해당하는 분량이 40시간으로 요약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관심있는 한인들

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아침예배 오전 8:00
2부전통예배 오전 9:30
3부열린예배 오전 11:00
4부영어예배 오후 12:45
5부정년예배 오후 1:30
영아부~소년부: 오전 9:30
소망부(장애우): 오전 11:00
중등부/고등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새벽예배: 오전 5:30분(월~토)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 466-1234 / F.(323) 466-0816

그리스도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째매가 되셨도다

사무스베이 목사회

회장: 김현수 목사 (토랜스 선한목자교회)
회계: 이황영 목사 (남가주 기쁨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6:00(토)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965-3443/F.(626) 965-0404
www.sunhanchurch.com

예수 부활하셨네 선한목자장로교회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6:00(토)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965-3443/F.(626) 965-0404
www.sunhanchurch.com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전병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유초등부/유치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626) 444-0058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13-747-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 장 23절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훼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상)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고 고난은 복음의 방식이다. 십자가를 무시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고난을 무시하는 삶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다.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2:1-2).

성탄의 새벽에 천사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큰 기쁨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2:10,11).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구유에 누인 아기로 세상에 오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주로 세상에 오셨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의 지식도 로마의 응변술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고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선언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2:1,2). 십자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 다음, 복음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은 고난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다. 십자가의 복음은 영광을 통해서 나타나고 멸시와 천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편파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또 지적한다. 복음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가난과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고 멸시와 천대의 길로 걸어가셨고 편파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가난과 고난의

길로 멸시와 천대의 길로 편파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에는 가난과 고난이 따랐고 멸시와 천대가 따랐고 편파와 죽음이 따랐다. 이것이 복음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마8:20).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셨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마16:21).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에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마20:18,19).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예수께서는 만찬석상에서 자기가 조만간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다시 말씀하셨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26:27,28).

마태복음 27장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마27:1,2).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찌어다 하며 그에게 침 벨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마27:27-30).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희롱과 침 벨음과 머리 침을 받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 복음의 핵



김명혁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십은 십자가였고 복음의 방식은 가난과 고난이었고 멸시와 천대였고 편파와 죽음이었다.

사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래 전에 메시아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고 멸시와 싫어 베림과 간고와 질고와 슬픔과 아픔과 징벌과 고난과 쪼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과 죽임을 당하시는 13가지 고난과 고통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징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쪼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임었도다”(사53:3-5).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사53:12).

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자세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또 묘사했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죄와 허물이 너무 많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당한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면서 멋진 가르침만을 추구할 권리가 없다. 신약성경은 전부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좋

은 소식인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며 중심이다. 성경에 나타난 고상한 윤리가 아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고난과 고통뿐이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며 중심이다.”(The Cross, pp.25,26).

로이드 존스 박사는 그의 저서 마지막 부분에서 십자가의 신비를 이렇게 지적했다. “십자가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기원이고 중심이다. 십자가를 떠나서 주어지는 축복은 아무 것도 없다. 십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어떤 축복도 불가능하다.”(The Cross, p.175).

십자는 복음의 핵심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우리들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십자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만 하다가 저주받을 운명이 축복받은 운명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군인들이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던 강도였다. 어떻게 이런 모순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모순되는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이 시간 십자를 한 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한 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的 길로 걸어가시면서 나타내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와 증오와 저주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아니었다.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칼을 뽑으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검을 도로 집에 끌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명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마26:52-54).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공의와는 어긋나는 모습이었다. 진리와는 어긋나는 모습이었다. 너무너무 이상하고 놀라운 바보 같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까지 했다. 사

실 십자는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와 고난”的 길로 걸어가시면서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죄악의 세력들을 쳐벌하신 공으로 운 심판이었는가? 아니었다. 오히려 저주 받아 마땅한 악독한 죄인들에게 지옥의 심판 대신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신 것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되는 일이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 향해서 분노와 증오와 저주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 대신 오히려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모습을 지니고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로마 군인들은 너무너무 놀랐을 것이다. 그 상황을 바라보던 로마 군인들의 대장인 백부장도 너무너무 놀랐을 것이다. 결국 백부장은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눅23:47). 악독한 죄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에게 지옥의 심판 대신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이다. 성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악독한 죄인들이 자신들 대신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의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놀라운 운명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십자는 바라보기만 해도 운명의 변화가 일어난다. 운명이 변화된 백부장은 평생 울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이다. “그 분은 정말 의인이었다. 그 분은 정말 의인이었다.”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 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악독한 강도 한 사람에게도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다. 그 강도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일이 없었다. 세례를 받은 일도 물론 없었고 착한 일을 한 일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고난”的 길로 걸어가시면서 악독한 강도에게도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셨다. 강도가 한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 것뿐이었다.

〈계속〉

장수한의원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자세
교정

근육
교정

축
장
이
전!

추나
수술 없이
척추 치료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땅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틀어 올리기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한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빼뚫어진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땅기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빼끗하여 허리가 아프신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끝!

- 통증 클리닉 :** 중풍마비, 관절염, 두통, 신경통, 요통, 디스크, 허리, 목
성 클리닉 : (남성전립선, 발기부전, 조루, 정력저하, 여성불감증)
한방 내과 : 감기, 천식, 고혈압, 당뇨, 위장병, 갑상선 질환, 변비, 알러지, 피부병, 비염
한방 부인과 : 불임증, 간기증, 생식기 질환, 월경불순, 산전 산후 보약
한방 정신과 : 치매 및 예방, 우울증, 불면증, 각종 스트레스 질병
한방 소아과 : 허약체질, 소아경기, 성장탕 및 보약 **기타 :** 비만치료
이런 분께 ...
▶ 이곳 저곳을 다녀 봤지만 효과 못 봤던 분
▶ 지긋지긋한 고질병을 없애고 싶은 분
▶ 본인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나 병원을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한방 특진안내 >> 침.뜸.부항.추나

두통, 목, 오십견,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 신경통, 중풍,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신경쇠약,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간기증, 어린이 보약, 산전산후 보약

각종 보험 환경 직장상해보험
교통사고 및 스포츠사고 전문
HMO (이지조이스)
통증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Tel : (213) 381-7575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2시 (예약 하신분에 한해서 밤 10시까지 진료)

장소를 이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144 S western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복사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깊어지는 인생

서정오 | 성서원 | 1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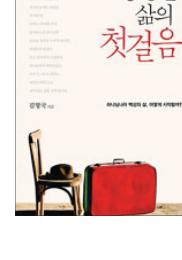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10가지 덕목'을 베드로전서 1장 5-7절을 바탕으로 제시한다. 성숙의 출발점이라는 믿음부터 힘써 더하는 것,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 사랑과 평화 등이다. 믿음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듯, 자신의 미성숙을 인식·인정하는 것이 '성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성숙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것"임을 역설한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

김형국 | 포이에마 | 256쪽

저자가 쓴 두 권의 책,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제자훈련 교재 '풍성한 삶의 기초'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이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초적인 신앙훈련 방법을 소개한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새 신자들을 비롯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초보 신앙'인 성도들 또는 세례받기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책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입각한 양육 교재다.



성령 기도

김홍만 | 생명의말씀사 | 1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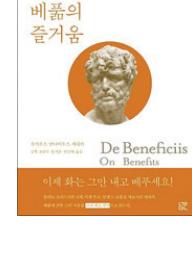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즈 등 청교도 거장들의 '기도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쓰인 책이다. 무엇보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하고 있다. 교회에서 '성령과 기도'를 주제로 함께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구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에서 21일간 '기도 프로젝트' 기간을 설정해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베풂의 즐거움

루키우스 세네카 | 놀민 | 388쪽

'베풂는 것'에 관한 고대 서양인들의 사유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저자의 후기 저작으로, 한국어로는 처음으로 번역됐다. 저자는 이성과 관조를 통해 '나'의 자유로움과 흔들리지 않는 삶을 강조하던 당시 스토아학파의 생각을 넘어, '너와 내'가 베풂을 통해 끈끈하게 얹혀 무너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돋고 함께 기뻐하는 사회관계를 그린다. 원제 'De Beneficiis', 은혜에 대하여.



REVIEW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시기까지 1주일간의 행적을 40일간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성하시면서부터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1주일간의 행적을 40일간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스테디셀러 <사귐의 기도>를 비롯해 요한복음 13장과 20-21장 설교집 <대야와 수건>, <잡혀야 산다>와 가상질언 각주제를 7주간 묵상할 수 있는 <가상질언 묵상> 등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언급해 왔다.

책은 마태복음 21-28장의 내용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면밀히 살핀다.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1주

일이 과연 책 제목처럼 "역사상 가장 긴 주간이며 세상을 바꾸고 역사 를 뒤바꿔 놓은 주간"임을 깨달을 수 있다. 최후의 만찬과 갯세마네 기도, 심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 시기까지의 긴박했던 하루 이전에도, 예루살렘 입성 후 많은 비유와 가르침이 있었음을 깨닫게 해준다.

각 장마다 본문에 대한 꼼꼼한 주석을 통해 독자들을 2천년 전 예루살렘의 한 지점으로 안내하는데, 말



미에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봅니다"라는 말과 함께 '지금 여기'로 다시 온다.

말씀의 은혜에 젖어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은혜

가 흐르고 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 일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행동은 자기 스스로 택한 죄인 반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행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당한 실패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했고, 베드로는 악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씻는 물이 되고 생명수가 됩니다", "주님의 일생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등, 통찰력 있

는 언어들로 우리에게 묵상거리들을 제공한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일종의 주석이며 묵상이자 강해 설교로, 본문 묵상에 초점을 두지만 중요한 역사적·신학적 주석 정보를 담으려 노력했고, 살아 있는 회중을 위해 현장감 있는 설교가 되도록 썼다"며 "무엇보다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본문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 애썼고, 학문적 연구 결과 위에 든든히 서되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울리는 메시지를 찾으려 노력했다"고 소개한다.

이대웅 기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LA사랑의교회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분(월~금)/6:20(토)
주일-비질중학교
토요새벽-1가와 버몬트 코너
(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LASR대안학교
(6기와 라파에트 코너-
520 S. La Fayette Park)
베질중학교(1가와 버몬트 코너-
152 N.Vermont Ave.LA, CA 90004)
T.(213) 386-2233 / www.lasarang.com

그리스도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째매가 되셨도다

동부교역자협의회

회장: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총무: 최준우 목사(엠마오장로교회)
서기: 송재호 목사(하늘샘교회)

예수 부활 하셨네

충현선교교회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매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www.choonghyun.org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남가주기쁨의교회

이황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유치부/아동부/학생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유초등부/유치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6:20(토)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326-0300 / www.rpcs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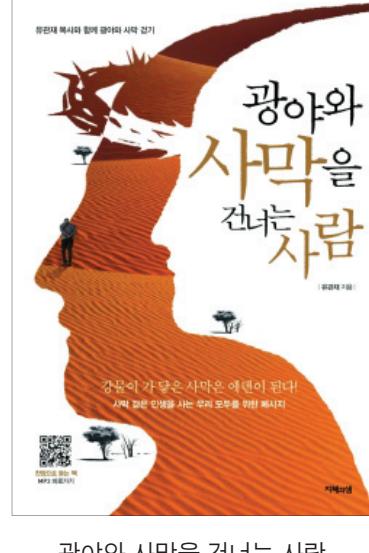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는 모든 이를 위한 안내서”

유관재 목사와 함께 광야와 사막 걷기

이 책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사막을 건너는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유목민’이라는 삶의 방식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까지, 유관재 목사는 이 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 준다. 그가 전하는 16가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사막이 아닌 에덴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모든 이야기마다 그 이야기를 반추할 수 있는 찬양을 QR코드로 연결해 놓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야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흑독한 계절을 지나고 있는가? 유난히 가파른 길을 오르고 있는가? 외로운 데 목마르기까지 해드려눕고 싶은가? 저자는 원래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고 말한다.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것이 인생이라며, 신앙의 선배들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말한다. “원래 그런 거다”, “내가 다 안다”는 말은 자칫 꾼대질이 될 수 있다. 백번 양보하여 ‘멘토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위안 한 조각뿐이다.

그런데 저자는 토닥토닥, 쓰담쓰



광야와 사막을 건너는 사람
유관재 | 지혜의샘 | 224쪽

담 위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 사막 같은 인생을 에덴이 되게 할 실질적 대안을,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 책이 “사막 여행을 시작한 청년, 사막 여행에 지친 중년, 그리고 사막 여행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이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여행 안내서”라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의 말은 더 큰 울림을 준다

저자 유관재 목사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목사일 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목사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힘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의 신선하고 열정적인 메시지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현재 성광침례교회(고양시 화정동 소재)를 섬기고 있는데, 그는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귀감이 되는 모델 교회”라는 네 가지 비전을 성도와 나누고 있다. 또한 “용서와 용납”, “감사와 나눔”, “거룩한 갈망”, “목숨 건 열정”을 교회의 4대 영성으로 삼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 그는 묘비에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했던 사람, 맡겨진 양떼를 가슴 저리도록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쓰이길 원하고 있다.

유 목사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목사가 되었다. 침례신학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아주사퍼시피대학(M.A., M.M.)과 애쉬랜드 신학대학원(D.Min.)에서 공부하였다. 저서로 『행복한 갤러리』, 『버려야 할 단어들』, 『찾아야 할 단어들』 등 다수가 있다.

고신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주와나교회 공동담임목사로 있는 정홍권 박사가 ‘성경으로 읽는 대학(大學)」(아침향기)을 펴냈다. ‘대학’은 유교의 사서삼경 중 하나로, 인간의 본분과 사립됨 등을 서술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문리대 국문학과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학과에서 공부한 저자는, 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그는 “유교라는 이유로 ‘대학’을 배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으로 읽어 기독교 윤리를 밝히 이해하도록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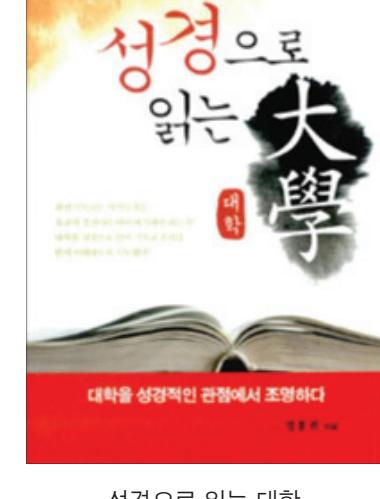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교회의 개혁에 있어 나 자신의 개혁이 우선임을 솔직히 시인한다. 이러한 점이 ‘대학’을 재조명해 보게 된 동기 중 하나”라며 “한국전통문화의 배경은 유교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재조명해 본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의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즉 스스로 인격을 수양한 자가 가정의 화목과 나라의 평안을 이끌 수 있고, 결국 세상의 평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기독교적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정 박사의 생각이다.

그는 “기독교인 역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적 성숙을 추구한 다음에야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고 그 것과 맞설 수 있다. 특히 목회자라면 더욱 그 래야 할 것”

이라며 “이런 점에서 ‘대학’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고 했다.

저자 정홍권 박사



성경으로 읽는 대학
정홍권 | 아침향기 | 290쪽

책의 제목처럼 ‘대학’에 대한 저자의 이 같은 평가는, 어디까지나 성경적 시각을 전제로 한 비판적 접근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며 인간윤리의 표준이지, 유교에서 가르치는 윤리가 인간윤리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며 “아무리 성경에 접근된 훌륭한 교훈일지라도 오직 인간 양심을 통해 가르친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박사는 “이것이 인간윤리에 대한 유교의 가르침을 내용으로 한 사서삼경을 성경으로 조명하며 읽어야 할 이유”라며 “만약 유교의 윤리적 가르침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둔다면, 이는 ‘대학’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본과 말단이 뒤바뀌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카이캄)는 소속 목회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성경으로 읽는 대학(大學)」을 추천하고 있다. 카이캄 목회국장 윤세중 목사는 “목회자들이 영성과 함께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 역시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평적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현실적 문제들을, 성경과 함께 이 책을 통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 믿음 없는 행함은 도덕군자”

정성진 목사의 야고보서 강해집



행함
정성진 | 예영 | 348쪽

바꾼 경건주의자들, 영국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은 웨슬리의 감리교 창설 등을 언급하면서, “역사의 문제는 반복된다”고 한다.

저자는 “언제나 문제는 말씀이 실천되지 못하고 곰팡이 피는 서재에 갇히거나 책상 위에 머물 때 일어났다”며 “우리나라에서 경전을 송상하던 유학자의 전통이 성경 중심주의 사상으로 이어졌다(배요한 교수)”의 말을 곱씹는다.

그는 “확실히 우리 한국교회 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통독, 성경쓰기 등의 방법론을 강조하는 교회는 없는 듯하다”며 “하지만 그런 읽기, 쓰기 같은 유학적 공부방법론만으로는 결국 지식 쌓기, 사변 놀음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사무실과 책상 위와 예배당을 넘어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며 저자는 “그것이 한국교회를 간구하는 목회자도 많는 방법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역설한다.

또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설교를 잘 하는 목회자도 많고 끊임없이 TV를 켜면 좋은 설교도 들을 수 있어 교인들의 지적 수준은 높아졌지만, 전하는 목사나 들은 신자들이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모두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믿음 없는 행함은 도덕군자를 만들 뿐이므로 믿음과 행함은 수레의 두 바퀴”라며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이 덕행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란다”고 책에서 권면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선진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GROUP: 오전 11:00(주일)
KIDS CHURCH: 오전 11:00(주일)
EM SERVICE: 오후 1:15
금요성인찬양예배: 오후 8:00
YOUTH GROUP: 오후 8:00(금)
KIDS CHURCH: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분(화~금)/6:30(토)

2630-A Towngate Rd.
Westlake Village, CA 91361
T.(805) 557-1122

**그리스도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째매가
되셨도다**

방주교회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1880 W. 220th St.,
Torrance, CA 90501
T.(310) 328-7020 / www.wPCA.org

**예수
부활하셨네**

세계성경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424) 257-8169 / F.(424) 257-8170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창대교회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
(매주 토) 오전 10:00~11:00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909) 388-2940

CHRISTIAN BUSINESS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가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솔무기박사는 이연이 균형세포의 당대사와 혼합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길게 관여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연이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제(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개월간 프로제(PRO-Z)를 복용한 결과 당뇨병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PRO-Z USA Inc.

213.434.1170

www.prouzusa.com / prouzusa@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현 FDA 임상 2기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진

Marquis Who's Who 등재

FDA ND 임상

Special Price 1병 \$89 3병 \$249 6병 \$474

+ tax + tax + tax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전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 SUM 칼라 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TOGO & 캐더링 환영
머글래 쌩갈래 연말연시 동성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가족모임 캐더링·도시락
요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월 브이브 돈까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뒤불고기 꽁치구이 오므라이스 떡민두국 우거지갈비
수 동태찌개 힘박스터 코디네이션 카테리스 유부+우동
독 김비탕 제육볶음 차반초림 소고기 농어밥 오뎅반반
금 꽂치김치 둑불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몬까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매탯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쉽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K 법무사 사무소

소장: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법적 해결

소장: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짐벌방 설치증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업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조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트날 방지
• 건선으로 인한 굵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빼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3달분 \$60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 예방
36 months closed end lease on above average
With \$2,369 Down, \$1250 lease cash, \$600 monthly,
\$400 security deposit, and up to 10% down payment
Total Drive off: \$10,999 without \$1250 lease cash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브로커 환영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Genesis 2015
ALL NEW 2015 GENESIS SEDAN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Genesis 2014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signature 2014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北, 동포 돋던 선량한 사람들 즉각 석방하라”

기독교시민단체협, 기자회견 통해 촉구 “정부와 유엔에도 노력 요청”



‘북한 여류자 석방 촉구 기독교시민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민네트워크〉, 〈생명과인권디아코니아〉,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20여 시민단체들은 제1회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3월 30일~4월 4일)을 맞이하여 ‘북한 여류자 석방 촉구 기독교시민단체협의회’를 긴급 결성하고, 최근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이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1일 서울시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북한 당국을 강력 규탄하며 김국기 선교사, 최춘길 씨, 임현수 목사, 김정옥 선교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에도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다.

이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지난 26일 중국 단둥시에서 대북 선교활동을 하던 김국기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구속하고 평화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북한은 김 선교사가 지난 2003년

9월 1일부터 중국 단둥시에서 지하 교회를 운영했으며, 수십 명의 조선족과 여행자들을 상대로 종교선전(선교활동) 및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최춘길 씨에 대해서도 작년 12월 30일 북한 경내에 불법 침입했다가 국경경비대에 단속·체포됐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협의회는 “지금 북한에는 지난 1월에 평양에 들어간 토론토 큰빛 교회 임현수 목사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2개월여 동안 억류되어 있으며, 2013년 10월 단둥에서 활동하던 김정옥 선교사도 간첩 혐의로 무기동교회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다”며 “북한은 우리 국민 3명에 대해서는 모두 간첩 혐의를 뒤집어 쐬웠고,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억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협의회는 “이들은 모두 혈액과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돋든 선량한 사람들”이라며 “김국기 선교사가 소속된 예장 합동중앙총회는 ‘김 선교사는 2003년에 중국 단둥으로 파송한 선교사로, 그 동안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며 탈북자와 조선족 등을 돌보는 사역을 해 왔을 뿐 간첩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억류된 임 목사도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1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극심한 기아로 허덕이는 북한의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해왔고, 국수공장, 라면공장, 백두산 들쭉농장을 만들어 북한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던 성직자였다”고 했다.

이 협의회는 “이러한 이들의 헌신적인 북한 동포돕기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간첩 혐의를 씌우고 억류하고 있는 것은 비인권적인 행위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들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온 북한으로서는 참으로 배운방덕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일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동안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왔던 한국교회와 대북 지원단체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것으로, 향후 지원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 사태를 야기할 수 있어 북한 당국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은 일이 발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석수 기자

한기총 부활절 메시지

“섬김과 나눔, 겸손과 내려놓음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가 대표회장 명의의 2015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기총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린다”며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고, 북녘 땅에도 울려 퍼져 진정한 자유와 해방

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과 나눔, 겸손과 내려놓음의 삶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며 “물과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 놓으신 것은 잊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요 희생이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NCCK 부활절 메시지

“부활의 기쁨 가지고 모두 갈릴리로 가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가 2015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 총무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의 장애를 모두 극복한 희망 노래의 시작이 된다”며 “한국교회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직후 찾아가신, 아프고 눈물이 흐르는 땅 갈릴리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살아온 분단된 땅의 젊은이와 그들의 미래, 공포를 감춘 노후한 핵시설, 88만원으로 채울 수 없는 가난한 청춘들의 자리, 장애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거리, 이 모든 곳이 오늘의 갈릴리”라고 했다.

그는 “부활하신 분께서 고난당하

고 죽임 당했기 때문에 부활의 ‘기억’을 안고 사는 우리도 이 시대의 권력에 의해 또 다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배고픈 이웃과 온 세상을 위해 준비된 ‘하나의 뺨’이 되어야 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갈릴리로 가자.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더딘 걸음 힘들어도 여럿이서 함께 가야 할 길”이라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갈릴리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보듬으며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길에 한국 기독교의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

한교연 부활절 메시지

“한국교회의 위기, 희망으로 바꾸어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2015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교연은 “한국교회는 지난 1세기 동안 민족의 등불이요 희망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도리어 세상에 극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는 이런 현실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겸허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희생과 섬김의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감싸주고 보듬는 일에 한국 교회가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또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희망으로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이다”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한국교회가 오늘의 고난을 밀기름으로 다시 일어설 때 부흥의 씨앗이 싹트게 될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예장백석 부활절 메시지

“한국교회 하나돼 ‘부활의 증인’ 되길”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이 2015년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장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발견한 희망의 메시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전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되

어 ‘부활의 증인’이 되길 소원한다”면서 “분열은 선교의 장애물이다.

우리 모두 연합하여 부활의 증인 될 때 다시 한 번 한국교회는 부흥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분열을 끝내고 하나님 때 새로운 생명의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요, 절망에 빠진 세상에 희망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반도 통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독일 보네베르거 목사의 국회 특별강연, 통일에는 대가 뒷따라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거 목사

지 못했다”며 “통일에는 대가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네베르거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회·특별초청강연회 및 시상식’에 참여해 가진 특별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네베르거 목사는 철공소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10년 뒤 베를린 장벽 붕괴를 촉발시킨 인물이다. 그는 기도운

동 중 구 동독 정권의 탄압으로 인한 온갖 스트레스로 뇌사 상태에까지 이르러 3년간 병원신세를 지기도 했다. 통독은 그가 뇌사 상태로 있었던 기간 중에 일어나 통일 현장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그의 이 날 강연은 기도운동이 주 내용으로 이뤄졌다.

보네베르거 목사는 먼저 기도의 동기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써 무릎꿇고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며 “절공소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10년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셔서 사람을 모으게 하셨다”고 전했다. 그의 깨달음은 나중에 1980년대 초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에서 80여명이 모인 촛불기도회로 이어진다.

그는 “기도할 때 공산주의의 심장

소련이 개방을 했다”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될 줄은 예상을 못했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가서 4장 3절의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구절을 나타낸 깃발을 단 자전거를 타고 공산주의 심장 모스크바까지 아우른 동구권을 누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 과정에서 “대가가 있었다”며 “값을 치러야 하는 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네베르거 목사는 “여러분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나간다면 늙은 몸이 나마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일 기자



이희문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청소년 예배: 오후 10:30

English Service: 오후 12:30

금요예배: 오후 7:30

YOUTH GROUP: 오후 8:00(금)

KIDS CHURCH: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분(월~토)

3938 Wilshire Blvd. LA, CA 90010

T.(213) 351-9975 (Fax겸용)

e-mail: cometojx@gmail.com

www.thejoylife.org



회장: 박민규 목사
총무: 김민영 목사

회원교회:

새생명장로교회 (승광철 목사)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오재택 목사)

씨미밸리한인교회 (반채근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박민규 목사)

옥스나드한인교회 (김진국 목사)

벤추라감리교회 (김영민 목사)

열린문장로교회 (김경문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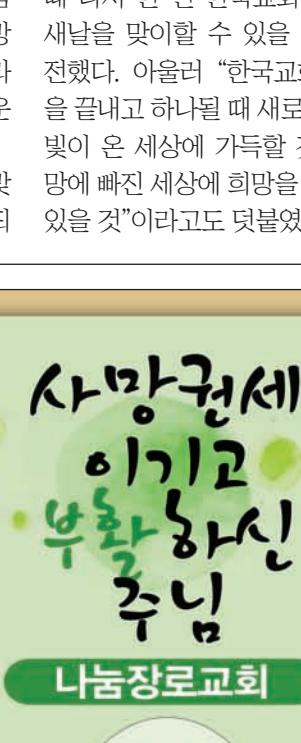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후 10:00
3부 오후 11:30

금요성령대망회: 오후 7:20

새벽예배: 오전 5:50(월~토)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310) 325-4020 / F.(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오후 2:00(주일)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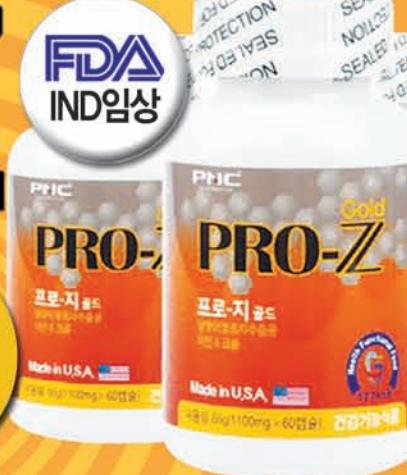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310) 404-6219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칼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